

영국의 가정용 소매전력시장의 동향

- 6개 대사업자가 시장을 독점 -

영국의 소매전력시장은 1990년에 계약전력 1,000kW를 초과하고 수용가에 대하여 공급이 자유화되었다. 다시 1994년에 자유화 범위가 100kW 이상으로 낮아지고 1999년에는 가정용시장을 포함하여 전면자유화되었다. 英國가스·電力市場局(OFGEM)은 2006년 2월에 2004년 이후부터 2005년 9월까지의 가정용 소매시장의 경쟁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시장 점유율, 공급사업자의 변경율, 가격 동향 등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다. OFGEM의 보고서에 있는 영국의 가정용소매시장 동향에 관한 개요를 소개한다.

1. 시장 점유율

영국에서는 대처 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1990년부터 전력사업에 경쟁원리가 도입되어 배전 및 소매 사업을 시행하여 온 4개의 地域配電局(스코틀랜드의 2개국은 발전을 포함)이 지역배전회사로 주식회사화되어 다른 지역에서의 전력소매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2000년의 공익사업법의 시행으로 지역배전회사는 배전사업회사와 소매사업회사로 분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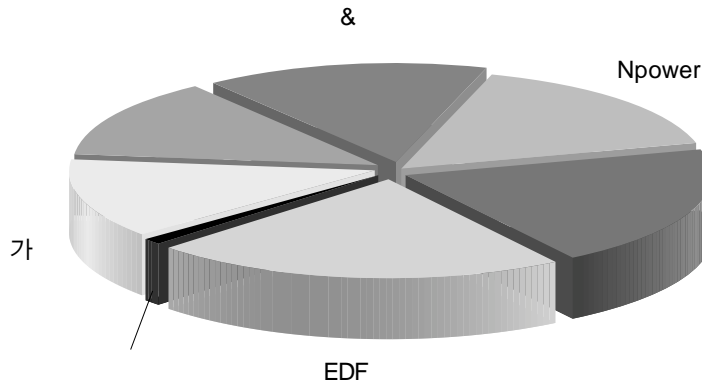
공급지역별로 본 가정용 소매전력시장의 점유율(share)에 있어서는, 다른 업종에서의 신규참여나 다른 지역에 본사를 둔 소매사업자의 참여로 인하여 그 고장의 소매사업자는 점유율을 낮추고 있다. 4개 지역 가운데 3개 지역에서 그 지역 소매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50% 이하로 되었다.

또한 영국 전체의 소매사업자 수는 신규참여자의 증가로 일시적으로 늘어났으나 사업자 간의 M&A가 진행됨으로써 6개 사로 정리되어, 이들 소매사업자가 국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각 회사의 시장점유율(2005년 9월 현재)은 1 같다.

2. 소매사업자 변경에 관하여

(양케트 조사결과에 의거)

OFGEM은 2005년 3월 전력 및 가스 수용가(2052인) MF 대상으로 소매사업자 변경에 관하여 전화로



출소: OPGEM

양케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모든 수용가는 거주지역과 소득 등에 관계없이 소매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또한 수용가의 자유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 영국의 소매경쟁시장은 목적인 대로 잘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변경율

- 2004년 이후 소매사업자 변경율은 47% (월평균 35만 호)
- 소매사업자의 변경율은 지역이나 수용가의 소득수준 등에 의한 차이는 거의 없었음
- 지역별로는 스코틀랜드 북부가 30%로 가장 변경율이 낮고 소득층별로는 저소득층 및 실업자층이 31%로 가장 낮았음

(2) 변경요인

- 소매사업자 변경을 검토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계약하고 있는 사업자의 요금 인상이 발표되었을 때」가 43%, 그 다음 29%가 「판매원의 권유를 받았을 때」라고 답변
- 소매사업자를 변경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변경한 일이 있는 사람의 87%, 변경한 일이 없는 사람의 65%가 「용이하다고 생각한다」「매우 용이하게 생각한다」고 답변

(3) 영업 및 권유 활동

- 수용가 중의 4분의 3이 다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소매사업자로부터 자기 회사로 계약을 변경하도록 권유를 받고 있었음
- 권유수단은 방문 50%, 전화 38%, 슈퍼마켓에서의 선전 7%, 광고·인쇄물 5%였음

(4) 고객만족도

- 고객만족도에 있어서는 35%의 수용가가 「만족」「매우 만족」이라고 회답했으며 사업자 간 및 수용가의 소득수준 등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대부분의 수용가는 소매사업자를 변경하여도 서비스의 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소매사업자 변경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음
- 지역별 고객만족도에서는 스코틀랜드 북부가 가장 높았으며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변경율이 낮은 것이 한 원인으로 생각됨

(5) 전기 · 가스의 세트 판매 이용

- 67%의 수용가가 Dual-fuel(동일사업자에 의한 전기 · 가스의 세트판매)을 이용
- 브리티시 가스는 Dual-fuel을 이용하는 수용가의 41%를 획득

(6) 요금의 지불방법

- 수용가의 54%가 요금의 지불방법으로서 Direct Debit(연간 추정사용량에 따른 정액지불방식)을 이용. Direct Debit의 이용자는 증가 추세임
- 실업자, 저소득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수용가 등은 Direct Debit이용률이 낮음

3. 전기요금

전력자유화 개시 이후 전기요금은 저하 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을 시점으로 전기요금은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의 1년간 전기사용량(3,300KWh)의 실제가격은 2005년에 약 300파운드(63,000엔)였다.

4. 잘못 청구에 대한 대응

소매시장의 자유화 후의 과제로서 청구 트러블의 증가를 들 수 있다. Energy Watch(에너지 관련의 소비자보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잘못 청구한 건수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OFGEM은 소비자에 대하여 2006년 7월까지 다음의 대책을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 사업자와 수용가 간의 트러블을 중개하는 독립된 기관을 설립할 것
- 소매사업자측의 착오에 의하여 2년간에 걸쳐서 요금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하지 말 것
- 거래약관을 재검토하여 필요하면 개정할 것

(발췌 : 일본전기협회 발행 “전기협회보”)